

정부, 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 선언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8월 6일(목) 인천광역시청(본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제일 인천 도약을 위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는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 위함이다.

이번 선언식은 최근 지방정부 발주 공사와 공공기관의 하수관로·맨홀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및 2차 구조 재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공감하며 성사되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지난해 2명이 목숨을 잃고, 올해 3명이 다쳤다.

행사에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산하 공공기관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특별안전교육(동영상)을 시청했다. 참석자들은 맨홀 진입 직후 쓰러지는 작업자와 이를 구조하려다 함께 희생되는 사고 영상을 시청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김영훈 장관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①측정, 충분한 ②환기, ③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질식사고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맨홀작업 시 사전작업 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과 맨홀 등 질식사고 위험 작업현장에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작업 개시 전 영상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검증한 후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체계다. 아울러 두 기관은 인천시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자는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공공부문이 누구보다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며, "이번 공동선언과 인천환경공단 사전안전확인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의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 안전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우리 지역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인천시 자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빈틈없이 가동하고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력하여, 단 한 명의 노동자도 다치지 않는 진정한 '안전제일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붙임 1. 공동선언문
 2. 맨홀 질식사고 예방 전담관리체계
 3. 질식사고 3대 안전수칙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현욱	(044-202-8870)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044-202-8871)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노동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현미	(032-440-5065)
		담당자	팀장	송해영	(032-440-4401)
담당 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책임자	부장	안정호	(052-703-0641)
		담당자	차장	강민호	(052-703-0642)
		담당자	과장	류인건	(052-703-0648)

◆ 선언문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선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천시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함께 선언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맨홀 질식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하나. 인천광역시는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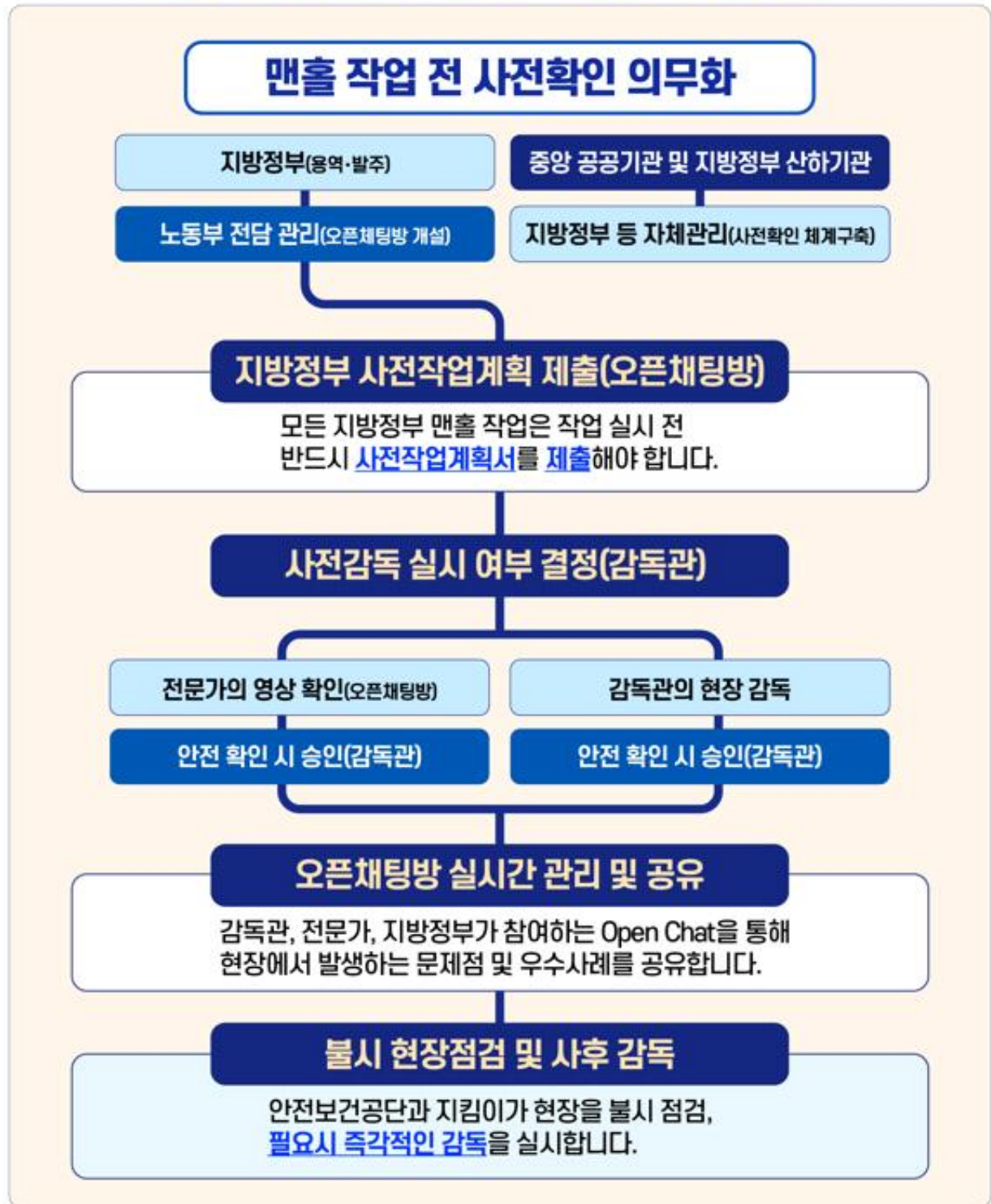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26년 8월 6일

고용노동부 장관 · 인천광역시장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 공공기관 일동)

맨홀 질식사고 예방 전담 관리체계

- 작업 전 사전점검과 실시간 공유를 통한 질식사고 예방 -



※ 공공부문에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앙 공공기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등도 고용노동부의 “맨홀 질식사고 전담관리체계”에 준하여, 자체 인력과 민간 전문가 등의 전문성을 활용, “사전 안전확인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1 산소·유해가스 측정!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알 수 없다면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2 충분한 환기!

작업 전,
작업 중에는 계속 환기하십시오

3 호흡보호구 착용!

적정 공기가 아닌 경우 반드시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세요

❖ 질식사고 예방 핵심 안전보건규칙 개정('25.12.1) 주요내용

- ①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의무 명시, ② 측정결과 기록·보존(3년),
③ 사고 발생 시 119 우선 신고, ④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교육 강조

밀폐공간 질식사고

밀폐공간은

환기가 부족하여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큰 장소**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오폐수처리,
맨홀, 축산분뇨처리 설비 등**에서
질식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정화조



분뇨처리장



맨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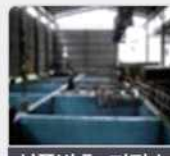
원료 저장탱크



침전조



반응기



식품발효·저장소



바지선 부력탱크



용접 배관내부